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七顛八起的 發明人 崔二淳

의길 27年……世界的 發明人으로 부상



〈崔二淳 사장〉

세계 최초의 「아크릴樹脂에 천연 색 사진이나 그림을 침투시키는 아크릴樹脂에 대한 轉寫방법」을 發明하여 發明企業人으로 부상한 太一化學 崔二淳사장.

지난 1960年 육군장교로 전역한 崔사장은 술한 역경을 오뚜기처럼 이겨내고 이제 아크릴樹脂轉寫 분야의 세계적 始祖가 되었다. 이는 이 분야 工業所有權만도 30件에 이르고 있음이 立證해주고 있다.

멜라민수지나 PVC樹脂의 轉寫 방법은 외국에서도 개발되었으나 아크릴樹脂의 경우는 崔사장이 세

계 최초로 지난 79年 特許登錄을 하고 제네바 國際發明品展示會에서 銀賞을 受賞함으로써 우리나라 發明人의 優秀性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같은 쾌거에 힘입어 해외바이어들로부터 商品에 대한 문의편지가 쇄도함에 따라 지난 1984년에는 輸出專擔部署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崔사장이 이렇게 成功까지는 실로 역경의 나날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지난 1973年の 유류파동으로 인한 企業도산은 崔사장에겐 너무도 혹독한 시련을 겪게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맨손으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10餘年の 아크릴樹脂 研究를 통해 축적된 專門技術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 「아크릴樹脂에 무늬形成방법」에 이어 이번에는 「다양한 색채와 무늬를 아크릴樹脂의 침투시키는 아크릴樹脂 轉寫방법」 研究에 도전했다.

이것은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成功하지 못한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새로운 研究분야였다.

수백차례 研究하고 實驗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어떤 조성의 염료는 아크릴樹脂와 결합하여 선명한 색상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發見했다. 이런 염료중樹脂와 결합하여 원색을 이루는 염료를 찾기위해 국내 염료상은 물론 외국의 염료제조 企業에 까지 샘플제공을 요청한 결과樹脂에 적성을 가진 염료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를 技術的으로 보완한 다음 特許를 出願하여 特許第7256號로 登錄되었다.

崔사장은 이때부터 이 製品의 본격적인 生産에 돌입했는데, 이 製品生産에 필요한 특수잉크도 自體開發하여 사용하고 있다.

崔二淳사장. 그는 아크릴樹脂에 도전한 이래 무려 27年만에 오늘의 太一化學이란 發明企業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아무리 작은 企業이라도 特定分野에서 專門技術을 보유하고 研究·開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大企業과도 몇몇이 競爭할수있다』고. <○>

第31回 發明教室

9月 13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9月 13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31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번에도 200여명이 參席하...○
- ...여 盛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는 太一化學 崔二淳사장과 東進開發 柳東日사...○
- ...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辨理士의 「工業所有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
- ...었다.○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映畫監督출신 發明人 柳東日

20年동안 150件 發明.....60件 登錄

神이 創造해 낸 신비한 눈(目)의 원리를 응용하여 현대문명의 이기인 「自動車の 전조등」을 發明해낸 집념의 사나이가 있다.

그가 바로 映畫監督 출신 發明人인 東進開發 柳東日사장.

柳사장은 20年동안 무려 150여件을 發明品을 開發하여 그중 60件은 特許登錄을 받은 發明企業人이다.

「한많은 반평생의 눈보라를 안고서 모질게 살아가는 이 내 심정을 저 강은 알고있다.」

가수 이미자씨가 부른 이 노래는 그의 작사로 그의 생애를 표출한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

20餘年の 세월을 바쳐온 藝術界를 등지고 그 후 發明人의 길을 걷기 시작한지도 또 다시 20餘年이 되었다.

그것은 그의 人生의 전환점이었고 거기에는 그만큼 이유와 작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물건을 부수고 고치고 하다가 술한 꾸중을 듣기도 했던 그의 손

버릇, 아니 잠재했던 才能이 바로 發明이라는 오늘의 결실을 형성시켜 왔던 요인이었음지도 모른다.

그 후 20餘年동안 무려 150餘件의 發明品을 開發하여 60件은 特許登錄까지 받았는데, 그는 發明企業人으로 부상시켜준 發明은 「自動車 전조등」이다.

이 發明品은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었던 發明品으로 우리나라 特許登錄에 이어 현재 日本을 비롯한 세계각국에 出願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優秀發明品으로 인정받아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에서 特許廳長賞을 받은바 있으며 發明의 날에는 發明有功者로서 商工部長官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본회 發明獎勵館에 그 모델이 展示되고 있다. 이 획기적인 發明品은 柳사장이 8年前에 着案하게 되었는데, 차를 타고 대관령 고개를 넘어가다가 전조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목격한 것이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계속 研究에 몰두하여 2年



〈柳東日 사장〉

전 드디어 結實을 보았다. 그동안 술한 고난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것을 發明하는데 심혈을 다 해온 그 집념의 發明人 柳東日사장.

그가 걸어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는 그 人間의인 姿勢와 바탕이야 말로 흔히 보아 넘길 수 없는 그런 특유한 사연이 있었기에 오늘의 結實을 보게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不可能이란 그에게 있을 수 없었고, 오로지 피와 땀과 努力으로서 일관된 그의 생애야 말로 황금으로도 살수 없는 고도의 精神姿勢 바로 그것이였다. <※>